


요코하마댄스컬렉션 R2008 수상자 결정!

일본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컨템포러리 댄스 페스티벌 【요코하마댄스컬렉션 R】의 경쟁부문, '요코하마 솔로x듀오 <Compétition> +'의 수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164개의 작품 응모가 있었으며 예선을 통과한 일본·한국·프랑스·핀란드의 18개조(이중 2개조는 사퇴)가 2월 8일(금)~2월 11일(월)에 개최된 본선에 임했습니다.
엄정한 심사 결과, 11일 하기의 안무가가 각 상에 선출되었으므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미래에 빛날 신진 안무가의 향후 활동을 기대해 주십시오!

젊은 안무가를 위한 재일프랑스대사관상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년간 프랑스 연수 차회 이후 요코하마댄스컬렉션 R에서의 작품 발표 권리 	
안무가명	<p>겐타로!! KENTARO!! (지바현·일본·27세)</p>	
작품명	울지마, 도쿄에서 기다려	
프로필	<p>댄스를 시작한지 14년. 중학생 때부터 스트리트 댄스 중심으로 배웠으며 댄스팀<LOCKIN' ON>을 결성함. 4년간 활동 후 솔로 댄서 겐타로!!로 재출발. 컨템포러리 댄스의 영향으로 연극에서도 춤을 추게 됨. 즉흥댄스를 중심으로 하여 힙합의 기술과 정신을 컨템포러리에 접목한 표현을 지향함.</p>	

*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지만 저의 작품이 다른 작품과는 남달랐기 때문에 제 자신의 색깔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상을 타고 싶었는데 정말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힙합 출신인데도 이런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분야에서 인정받은 것이 여러 사람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베이스가 힙합이므로 반대로 컨템포러리를 하는 사람이 힙합을 하는 등 서로 영향을 주면서 댄스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더 좋은 댄스를 관객들에게 확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스태프에게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겐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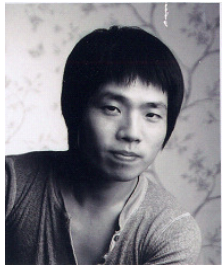
■ 심사원 코멘트 : 레베카 리

이번 요코하마댄스컬렉션 R은 여러 장르의 작품이 선보인 신선한 대회였습니다.

독창성, 존재감, 안무의 질, 구성력이 이번 심사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젊은 안무가를 위한 재일프랑스대사관상을 수상한 겐타로!!는 무대에서의 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미래로 뻗어가는 요코하마상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코하마 아카렐가창고 1 호관에서의 단독공연 권리 차회 이후 요코하마댄스컬렉션 R에서의 작품발표 권리 	
안무가명	<p>박·홍기 Park Hong Ki (한국·32세)</p>	
작품명	Ice or Water	
프로필	<p><Master Jakkie-TTapanel> 댄스컴퍼니(몽페리에), <Paris Harmonic >(프랑스), ModaFe 2003(국제현대무용제)에서 Emilio Greco/PC 워크숍 제 7회 신세대안무가 컴페티션<Philippe-Saire> 댄스컴퍼니 그랑프리 수상. 2003년 1월부터 대구시 모던댄스컴퍼니에 소속.</p>	

* 가슴이 터질듯이 기쁩니다. 이런 상을 받은 만큼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요코하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흥기)

■심사원상+MASDANZA 상

- 차회 이후 요코하마댄스컬렉션R에서의 작품 발표 권리.
- 스페인 MASDANZA 에서의 공연 권리.

宝栄 美希 호에이 미키 (이시카와현·일본·22 세·여성)

「Line」

*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기뻐는데 상까지 받아 너무 기쁩니다. 얼마 후면 졸업하는데 이 작품을 위해 선생님과 동급생들로부터 어드바이스는 물론, 조명과 음향을 포함한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컨템포러리 댄스를 대학에서 시작하기 전에는 모던 댄스를 했습니다만 이 세계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심사원 코멘트 : 나탈리아 메디나 산타나

이번 대회는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높은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특히 솔로x듀오 부문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컨템포러리 댄스에 요코하마시가 기여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호에이씨를 선정한 이유는 스테이지에 오른 순간 관객을 매료시키는 그녀의 나긋나긋함! 가녀린 여성의 그 힘찬 동작에 감동했습니다. 가능성있는 젊은 안무가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심사원상

- 차회 이후 요코하마댄스컬렉션R에서의 작품 발표 권리.

Park Eun Young 박 은영 (한국·23 세·여성)

「The walking fish」

* 이 상을 계기로 더욱 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번 발표를 토대로 안무가로서도 댄서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이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심사원상

- 차회 이후 요코하마댄스컬렉션R에서의 작품 발표 권리.

Park Young Jun 박 영준 (한국·30 세·남성)

「Dreaming Bodies」

* 이 작품을 일본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에서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코하마 솔로x듀오 <Compétition>+】심사원

- 레베카 리 (레 라보와트와르 도베르 베리에 매니저)
- 미우라 마사시 (평론가)
- 이토 준지 (후지야마대학 예술문화학부 교수/미술평론가)
- 가와사키 도오루 (연출가)
- 무라카미 가스미코 (작가)
- 엘렌 켈마슈터 (프랑스대사관 문화담당관)
- 필립 라르 (요코하마 일불(日仏)학원 원장)
- 후지사키 노부히로 (재단법인 요코하마시예술문화진흥재단·요코하마 아카렐가창고 1 호관 관장대리)

【문의】 요코하마 아카렐가창고 1 호관(재단법인 요코하마시예술문화진흥재단)
 〒231-0001 요코하마시 나카구 신코 1-1-1 TEL: 045-211-1515 * FAX: 045-211-1519
 담당 : 나카토미 가쓰히로(中富勝裕) · 나카소 안나(中祖杏奈) ydc@yaf.or.jp